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3>



식당아줌마의 성공비결

오늘은 우리 동네 부대찌개 식당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네 허름한 2층 건물의 1층에 세를 들어 있는 작은 식당인데 4인용 밥상 6개가 전부입니다. 반찬은 오직 김치와 부추무침 뿐이고, 메뉴 또한 단출하여 부대찌개와 낙지볶음과 전골이고, 별미로는 훗날면이 있습니다. 이 식당의 주인은 50대에 막 들어선 아줌마입니다. 그래서인지 단골의 대부분은 동네 주부들입니다. 단출한 메뉴판에서 그나마 쫄면 시킬까 망설이면 주인아줌마의 현명한 참견이 반드시 끼어들고, 음식에 대한 상담도 즉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만큼 자신이 만들어 내놓는 음식에 대한 그녀의 자부심은 매우 큼니다. 부대찌개에 라면 사리를 두 개 주문하면 국물이 탁해져 맛이 없다며 '안 된다'라고 거절합니다. 사람 수에 비해서 좀 많이 시켜도 그녀는 도리질합니다. 부추무침을 먹지 않으면 그 영양 만점인 음식을 왜 안 먹느냐며 이내 설교가 벌어집니다.

였지만 그런 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소꿉친구 같은 인생행로의 다른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사업장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아이템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변화를 꾀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여 성공한 사람도 주변에는 더러 있지만 사업을 크게 벌여야 할 때를 정확히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두 가지 모양이 있다. 자신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것과,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을 싫어하고 버리는 것이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두 가지 모양이 있다. 자신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싫어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것이다"라는 <중일아함경>의 말씀이 잘 적용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그녀는 처음부터 큰 수입을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쌓되 적은 데서 시작하라. 마치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는 벌처럼 재물은 날마다 점점 늘어나 마침내는 줄거나 소모됨이 없으리라." <장아함경>

16년째 한 곳서 변치않는 메뉴로 식당 경영 욕심내지 않고 소규모로 꾸준히 한길 걸어

음식도 맛있고 주인의 접대 솜씨도 일품이어서 그런지 언제나 식당 앞은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다른 곳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사업에 대해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16년째 같은 곳에서 같은 메뉴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사람들은 날 보고 반듯하게 식당을 넓히려지만 나는 그런 거 싫어. 지금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해갈거야." 식당 이야기를 할 때 그녀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나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 지금도 음식과 관련된 거는 뭐든 메모를 하고 만들어봐. 하지만 난 다른 메뉴를 추가하진 않을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사는 게 가장 자신있는 사람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로 그냥 끝까지 밀어붙일 테야." 스스로를 성공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식당 아줌마가 한없이 부러워 곱곰이 그녀의 성공비결을 헤아려보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말하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리기보다는 아주 조금씩 재물을 불려나간 것 또한 사업의 귀재도 아니고 종자들도 빈약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 그녀는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불반나원경>에 "수십 명이 각각 활을 가지고 과녁을 향하여 화살을 쏘면 앞에 맞는 것도 있고 뒤에 맞는 것도 있지만 쉬지 않고 화살을 쏘면 반드시 과녁의 중앙을 맞듯듯이 게으르지 않고 끊임이 없으면 도를 증득할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인젠가는 적중하리라 할 희망을 가지고 쉬지않고 화살을 쏘아댄 것이 부대찌개 식당 아줌마의 또 하나의 성공비결이라 할 것 같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통화불교'를 주창하는 각성 스님. 스님은 한 생각만 돌이키면 오락막세가 극력일 수 있으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되 무주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화합'의 길로 나서야



각성 스님

(부산 화엄사 회주)

승가 본래 의미는 화합 악한 마음 버리고 무주상 보시해야

분열의 시대다. 세계는 자본의 우위에 따라 구분되며 양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나라마다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립·갈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2005년 한국 또한 남과 북 뿐만 아니라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고, 다시 자연과 학연 혈연으로 구분 짓는다. 화합이 필요한 때다. 서울 한복판 종로 5가에 있는 보명선원을 찾았다. 저릿저릿 한 가운데서 '통화(統和)불교'를 주창하는 각성(覺性)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평소 부산 화엄사에서 주석하는 스님은 여기에서 격주로 퇴직 교수나 장성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스님에게 먼저 통화불교의 개념에 대해 물었다. " '통화'란 '통일'과 '화합'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통화불교를 주창하는 이유 중 하나로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화합시키고 통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통일하면 범부가 성인이 되고 보살이 되어 부처가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거품같이 일어나고 혼란이 오며 윤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은 우리 모두 일불제자이고 불법 또한 하나지만 나라마다 모양새가 다르고 서로 다른 불교를 믿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국 사람은 한국불교를, 중국 사람은 중국불교를, 일본 사람은 일본불교를 믿기 때문이다. 토착화 때문에 몸만 바꾼 것이라고

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바꾼 몸을 믿는다. 이제 몸 안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름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발전한 것은 아닐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립하고 갈등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결과물이 생성된 것은 아닐까, 스님에게 통화의 개념으로 본 역사관에 대해 질문했다. 스님은 사람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사람은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태어나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되풀이한다.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우주의 시공간이 춘하추동(春夏秋冬)과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궤도 속에 있는 것처럼 역사 또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화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스님은 지난 역사에 대한 소중함도 일깨웠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전 역사를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허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단지 그 시대에 맞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었던 것이다. 스님은 이를 '여름이니까 모시옷이 나오는 것이고 겨울이니까 솜옷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스님은 통화를 '화정(和靜)'과 비교하며 설명하기도 했다. "원효 스님은 화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Advertisement for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Beomeosa Seolsendaebop Hui Dharma Set). The ad features a background image of Beomeosa Temple and a central illustration of a Buddhist figure. Text includes: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들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세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법보시 (연말연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헌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500세트 한정판매 30,000원 (무료배송)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400세트 한정판매 40,000원 (무료배송)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At the bottom, it lists the publisher: '판매처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0 / 02)2004-8218~9'.

화장은 중론(中論)과 달리 여러 가지 쟁론 속에서 높은 가치를 이끌어내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21세기에 와서는 화쟁보다 통화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루는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승가(僧家)의 원래 의미도 화합이라고 부른 설명하며 모든 중생들이 행복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도를 닦는 목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불교계 내부를 보더라도 종단과 종단끼리 불협화음을 표출하고 있고, 종단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한다. 특히 입으로는 불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를 마음 또한 분열돼 있다. 스님에게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부처님도 이 세계를 오막악기(五濁惡世)라고 했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분명 거리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이상이라고 한다면 현실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보면 오막악기가 극락이요 천국일 수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관념을 바꾸면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뀝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님은 비판도 낙관도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자재(觀自在)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관세음보살처럼 곁길 없이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눈으로만 보는 것 아니라 말해 본다, 맛을 본다, 맡아 본다, 들이 본다. 생각해 본다 처럼 모든 것에 곁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공부도 관자재보살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미륵부처님이 오는 시대는 오름이 저절로 정화된다고 하지만 그 이전까지 현실과 이상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극락세계를 조금이라도 빨리 오게 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 착한 일을 행해야 하며, 세 번째 착한 일을 행하되 상을 내지 않고 무주상(無住相)으로 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며 선악과라는 열매가 있는 것으로 봤지만, 선과도 따먹지 말고 악과도 따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악을 버리고 선을 하되 선을 한다는 상(相) 없이 하더라도 자연히 정화가 되고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경전을 소홀하게 여기는 한국불교 현실에 대해서도 일침을 놔다. 스님은 “한국불교는 탄허 스님 말씀처럼 무식불교”라며 거침없이 말한다.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잘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 과정 밝은 사람이라도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요즘은 불교교양대학을 비롯해 불교계 신문, 잡지 등이 발달해 있어 스님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어릴 때에는 작은 웃음 입어야 하지만 커서도 작은 웃음 입을 수는 없다. 성장하면 작은 웃음 버리고 큰 웃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죽어봐야 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죽기 전에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스님은 평생을 강당에 서면서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해왔다. 서툰각 박사를 비롯해 불교계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스님의 강의를 들으며 구도의 길을 걸었다. 그들에게 스님은 ‘초지일관(初志一貫)’을 강조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밝아지게 됩니다. 촌놈이 서울에 오면 청계천이 어딘지 종류가 어딘지 모르지만 오래 살다보면 구석구석 골목길까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래 공부 하다보면 결국 터득하게 되듯이 초지일관이 제일 중요합니까.”

스님은 또 불교공부는 항상 마음을 비우고(虛) 밝게(明)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불할 때나 참선할 때 기도할 때도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다. 마음이 원래 비고 밝은 것이기 때문이다.

40여 년간 불법에 진력한 스님에게 어떻게 정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참선이나 진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쉬운 것은 열불입니다. 용수보살은 열불로써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며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娑論)> ‘이행품(易行品)’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즉 어려운 정진방법을 선택하는 난행도(難行道)와 쉬운 방법인 이행도(易行道)로 구분했습니다. 용수보살은 그 중에서 이행도인 열불로써 현재에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배(열불)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르지 나무를 심고 배를 만든 다음 타고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힘들겁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보살의 사명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개인의 성불이고 다른 하나는 불국토 장엄이다. 성불이 개인의 인격 완성이라고 하면 불국토 장엄은 사회를 정화하는 것이다.

분열의 시대, 보살의 사명을 지니고 가없이 정진한다면 개인의 성불 뿐 아니라 불국토 장엄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고영매 기자

보살의 사명은 성불과 불국토 장엄 마음 비우고 밝은 자세로 공부하라



각성 스님은 현재 집필중인 <통화총서> 300권 완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 철학적으로 설명을 잘해 놓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능엄경>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육조단경>이나 <유마경>을 권하기도 했다.

스님은 현대지자(天台智者) 대사의 “당대에 법의 이익을 끼치려면 설법을 해야 하고, 후대에 법의 이익을 끼치려면 설법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껏 강의한 것을 책으로 보급하고 싶다는 원력을 보였다. 스님은 현재 집필중인 <통화총서> 300권 완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성 스님은 부산 화엄사에 전강원을 개설해 후학 양성을 하고 있으며, 탄허불교문화재단 부설 삼일선

‘統和불교’ 주창... 탄허 스님 사사한 대강백

각성 스님은

1938년 전남 장성의 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8살 때부터 조부에게 한학을 배웠다. 1954년 5천년 조선역사(판 책에서 울곡 이이 선생이 절에 들어가 공부했다는 대목을 읽고 백양사를 찾는다.

55년 18세 나이로 해인사 백련암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이후 당시 3대 강백이라는 관

응·탄허·윤허 스님 밑에서 배움을 길을 걸기도 했다. 탄허 스님에게는, ‘제자에게 월급을 주고 원고 교정을 맡기기는 처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대강백 각성 스님이 펴는 최고 경전은 무엇일까. 스님은 <능엄경>을 최고 경전으로 꼽았다.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논리적 과학



주경 스님의 스님이야기

상우 스님

즐거워하는 삶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쫓겨나가는 것이 가장 멋지다. 매일 저녁공양전 소임을 마치고 자갈한 빨래거리들을 세탁하는 일도 그 중 하나다. 지금은 속가는 물론이고 산사에서 거의 사라진 모습이지만, 스님들이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는 일은 소육지족을 실천하는 소박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신도들이나 일반인의 눈에 가장 안쓰러운 일이기도 한 것이 속옷이나 양말 등을 직접 빨래하고 정리하는 스님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강당시절은 출가 의지와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 눈에 띄는 별난 행동들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상우 스님은 몇 가지 면에서 도반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스님이다. 성격과 하는 행동이 깔

려져 보았지만 도저히 구별해낼 수 없었다.

빨래거리까지 그렇게 각을 맞춰 개켜놓는 성격도 그렇고 2주일은 입었다는 옷이 빨아놓은 옷과 구별조차 할 수 없게 깨끗한 것도 정말 희한했다. 그 뒤 도반들은 상우 스님의 끈임이 경지가 높아져 이구지(離垢地)-더러움을 여린 경지-에 오른 것인가 보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점심공양을 마치고 우리반 스님들은 안행으로 큰방을 향하고 있었다. 상우 스님은 그때 반장소임을 맡아 맨 앞에서 걸고 있었고, 줄의 뒷부분에 있던 스님 몇은 날이 너무 좋아 산행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속삭이며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행렬이 법당을 향해 가는 것이었다. 뒷사람이 앞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행이라 다들 의아해 하며 법당에 들어갔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율령거리라도 있나 하고 다들 궁금해했다. 그때 상우 스님이 앞에 나서더니 안행중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법당에 왔으니 다같이 108배참회를 하겠다고 했다. 평소 원칙에 충실한 상우 스님을 잘 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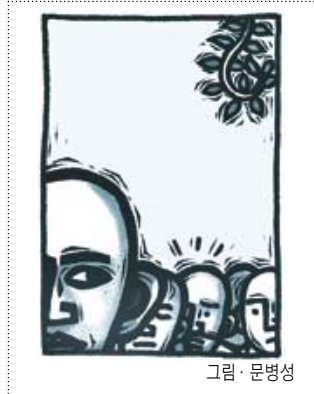
원칙 지키는 깔끔한 성격 양말 깎고 또 기워 신어

있던 터였다. 그렇지만 눈앞에 딱한 현실은 강당 생활 가운데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황당했다. 뜻밖이 의미를 제기했고, 이야기를 한 스님들은 자신들이 책임지고 참회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함께 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점심공양을 마치고 법당 앞을 지날 때 한 스님의 나직한 투덜거림이 터져나왔다. “오늘은 108배 안하나?” 그순간 행렬은 다시 법당으로 향했다.

이름이나 연속 108배를 한 스님들은 아랫만 보기 창피하다며 웅퉁성 없는 상우 스님을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우 스님은 자기를 놓고 전체 도반이 웅퉁성이 없다고 해도 도리어 다들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끄덕도 않았다. 오히려 모범을 보인 것이니 더 당당해야 한다는 말로 도반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해인사 장경각 1000원 기도를 마치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한동안 고생을 했다고 들었는데, 단 나면 늘 여여하다. 선원을 전문으로 다니지는 않아도 결제철에는 선방에 가거나 기도를 하며 게으름 없이 자신을 닦아간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 그 파악한 웅퉁성도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웅퉁성일 뿐 자신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고지식함을 지니고 있다. 때로 컴퓨터나 카메라 등 기계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자신의 수행생활과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 또한 당당하다. 가끔 도반들의 풀어진 모습을 보며 나직이 꿀꿀거리며 혀를 차는데 늘 건조한 그 초발심의 열정은 도반들 가슴을 뜨겁게 하곤 한다.

서산 부석사 주지



그림·문병성

끔해서 ‘깔끔 존자’라고 불리기도 했고, 원칙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며 꾀뚫한 고집을 버리지 않아 ‘꿇꿇 존자’라 불리기도 했다.

그렇게 ‘깔끔’과 ‘꿇꿇’을 본분으로 삼는 스님에게도 별난 모습이 있었다. 누구라도 한번씩은 양말을 꿰매 신지만 상우 스님은 정도가 심했다. 다른 스님이 버린 양말까지 주워서 모아두곤 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떨어진 양말들과 씨름 하기에, 너무 공상스럽다고 핀잔을 듣기도 했다.

언젠가 상우 스님이 자신의 관물장을 열어 옷을 두 벌 꺼내더니 좀 보이달라고 했다. 며칠 전 옷을 갈아입고 빨래거리를 넣어두었는데 잘 구별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이 넣었던 빨래거리도 구별못하는가, 시력이 그렇게 나쁘냐?”며 웃을 살펴보았는데, 빨아서 잘 개켜 놓은 옷들이었다. 다 새 옷인데 무슨 빨래거리냐며 관물장을 다시 살펴보고라고 하니, 그 옷이 다라며 분명히 빨래거리가 있으니 잘 살펴보고 다시 부탁하는 거였다. 분명히 며칠전 옷을 갈아입고 나중에 빨 옷양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원래 빨래거리도 잘 개켜놓는 버릇이 있는데 잘 구별을 못하겠다고 한다. 건조해서 웃기이며 소매를 비롯해 때가 잘 타는 곳을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2006년 전학기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대원불교대학 불교방송 다보빌딩으로 학사이전



모집과정

- 입문과정 (서울·부산) : 불교입문과정 주.야간반 각00명 [주1회출석,6개월과정]
- 대학과정 (서울·부산) :
 - ◇ 불교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출석 /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출석 /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대학원 과정 : 서울,부산 야간반 30 명 [주2회 출석 / 야간 오후7시]
- 통신과정 : 00명 [대학원은 제외]

강의시간

● 주간/오후2시부터 4시40분까지 ● 야간/ 오후7시부터 9시40분까지

지원자격

- 입문과정 : 불교기초 교육을 받고 싶은 초심자
- 대학과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 대학원 과정 : 불교교양대학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포교사 자격소지자 우대]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고 소정양식 1부)
- 학업계획서 및 졸업증명서 각1부 (대학원 과정만 해당)

전형일정

- 원서교부 :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0일
- 원서접수 :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0일
- 입문, 대학, 대학원전형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06년 2월 21일 (개별통보)
-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서울 / 2006년 2월 26일(일) 오전11시 3층 큰법당
- 부산 / 2006년 3월 5일(일) 오전11시 2층 큰법당

전형료 및 수업료

- 전형료 : 입문과정 1만원 / 대학과정 2만원 / 대학원과정 5만원
 - 수업료 : 입문과정 10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학기당 : 대학과정 : 30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대학원과정 : 40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 수업료는 입학식전에 완불하셔야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가능) 1학기에 한하여 학사이전기금으로 입학생 전원 20%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전형료 및 수업료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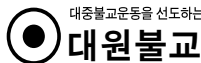
- 서울 : 국민은행 098-01-0244-009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 부산 : 기업은행 252-028746-01-017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 : 서울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2)706-1570,1 / 754-1613 / 773-9171
 - 부산 : 부산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51)583-7811~ 2
-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 해드립니다.

문의

- 서울대원불교대학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2층
 - ☎ 02)706-1570, 1571
 - ☎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 ☎ 02)754-1613/773-9171 / 팩스 02)771-6796
- 부산대원불교대학 : 부산 금정구 장전1동 382-2
 - ☎ 051)583-7811 ~ 2 / 팩스 051)583-7700



대중불교운동을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 www.buddhaschool.or.kr